# ‘진안 인삼재배 문화’ 군 향토문화유산 됐다

## 농경 분야 전통 지식 첫 지정

‘진안인삼재배 문화’가 진안군 향토문화유산(무형유산 제3호)으로 지정됐다.

농경 분야의 전통 지식이 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대상은 인삼 재배·가공 기술과 더불어 인삼 문화를 포괄하며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 없는 종목으로 지정됐다.

진안군은 지난 18일 열린 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위원장 최규영)에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문화재의 학술적·문화적 가치에 입각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진안인삼 재배의 특징과 진안인삼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 주목하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진안인삼재배 문화’가 진안군 향토문화유산(무형유산 제3호)으로 지정됐다.

진안 인삼 재배의 특징은 진안군의 자연환경, 진안군 정책 및 제도 등 인삼 재배 여건이 매우 우수하고 진안인삼이 백제삼의 전통을 가지면서 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타 지역과 달리 역사기록이 남아 있다. 최근에 발견된 이병항의 일기 ‘과록(課錄)’에 당시(1896~1897년) 본인이 직접 인삼을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진안인삼의 가공기술력이 타 지역보다 앞서 있고 인삼가공기술의 발달은 인삼 재배 역사를 입증하는 것이며, 인삼 보존과 가공기술을 통해 진안 인삼재배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진안인삼의 문화적 가치 측면에서는 진안경제에서 인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인삼 재배 및 가공과 관련한 제례, 의식을 통해 인삼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있다.

특히 인삼농가와 함께 인삼 경제의 지속성을 위해 농가 육성, 가공 기술, 개발 정책을 펴면서 공동체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으며 홍삼한방특구, 홍삼축제 등 진안 인삼산업의 창조적 계승을 이어가고 있다.

진안군은 이번 향토문화유산 지정으로 진안 인삼 재배의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기술성, 사회 문화적 가치 등을 인정받음으로써 진안 인삼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인.홍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인삼 재배 문화는 우리 군의 귀중한 문화로써 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환영하며, 추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여 진안인삼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김성덕 작가와의 만남’ 진행

‘2021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최근 서예비엔날레 1관 O갤러리에서 신산 김성덕 작가 초청,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3회째를 맞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전시행사 기간 중 두 번째로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

김 작가는 원광대학교 서예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원광대 서예과 강사를 역임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공모전 심사위원 역임, 한국전각협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올해 3월 (사)일중선생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일중서예상’을 수상, 올해 3월 백악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이번 작가와의 만남에서는 작가의 휘호모습을 볼 수 있어 서예를 하고 있는 참여자들과 비서예인들에게까지 서예의 역동적인 필획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첫 번째 휘호 작품은 4미터 길이의 대형 작품으로 당나라 위응물의 시 ‘저주서간’을 한간문 필의로 창작 휘호를 했다. 뒤이어 청대 하소기 필의의 금문, 명대 부산의 행서 등 임서 휘호와 창작 휘호를 선보였다.

특히 이번 작가와의 만남은 참여자들에게 서예의 미감과 작가 특유의 운필법과 장법의 활용 등 필법의 다양한 운용을 배울 수 있는 자리였다. /장은성 기자

# 전주공예품전시관서 남지현·최현미 듀엣전 ‘DISTANCE’

남지현·최현미 듀엣전 ‘디스턴스(DISTANCE)’가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열린다. 관람료는 무료다. 다만, 월요일은 휴관이다.

이번 듀엣전 주제인 ‘DISTANCE’는 전북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두 작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 남 작가는 순수미술 전공자로서 손의 가치를 찾고 있었고, 최 작가는 수공예의 즐거움을 예술로 확장시키고 싶어 했다.

둘은 ‘2017전주 핸드메이드 시티’에서 작가와 프로젝트 매니저로 만났다. 늘 자신의 영역에 대한 아쉬움과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로 소통했으며 손의 가치 그리고 지역과 관련한 경험이 담긴 문화의 이미지를 담은 오브제를 만들고 싶어 했다.

지역의 정체성을 넘어 시간과 손의 가치가 만들어주는 의미를 찾고 싶었던 둘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에게 다가가는 의미로 ‘거리’라는 주제를 정하고 전시를 준비했다. 다수의 전시를 경험한 남작가는 수공예를 통한 자신의 이야기를 넣고 싶었다. 최 작가는 자신만의 감성을 곰이라는 소재로 이미지를 만들어 따뜻한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싶었다.

한편 남지현 작가는 2003년 전북대학교 미술학과를 거쳐 한국화전공 석사 졸업 후 현재 남스토리(NAMSTORY)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남 작가는 핸드메이드 작가로 17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남스토리를 운영중이다.

남지현·최현미 듀엣전 작품.

최현미 작가는 2003년 전북대학교 의류학과를 거쳐 현재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프리랜서 테디베어 메이커 및 패션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다. 최 작가는 의류학과 졸업 후에 자신만의 테디베어를 만들며 테디베어 강사와 작가로 활동해 왔다. /장은성 기자

#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여성 경쟁력 향상 ‘앞장’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내년도 역점사업 발표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윤애 센터장)는 29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경영목표를 이루기 위해 2022년도 역점사업과 사업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센터는 내년에 ‘전북 젠더 거버넌스’ 구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센터는 전북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회, 행정, 연구, 학계, 문화 등 분야별 여성 대표와의 논의를 지속해 왔다. 또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확보, 조직구성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북 젠더 거버넌스 TFT’를 발족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양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운영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양성평등 사업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2030 청년,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등으로 대상을 세분화해 진행함으로써 우리 지역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도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인형극장 패널 시어터’는 동화책을 기반으로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역할극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성평등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30 청년 성평등 활동 지원’은 성평등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담론과 공론화에 중심이 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평등한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청년 정책발굴 및 제안, 캠페인, 모니터링,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유도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동네 젠더스쿨’은 풀뿌리 활동가가 중심이 돼 기획한 대상별 맞춤형 성평등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강사(젠더전문가)가 지역의 젠더 이슈를 중심으로 직접 강좌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강사가 만들어 가는 성평등 기획강좌’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전북새일센터의 활동을 다각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예방 기업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성고용,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 활용 현황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도 ▲향후 여성 채용계획 등 다양한 내용의 수요조사를 진행해 여성의 장기근속 정착을 유도한다.

특히 신규 직업교육훈련인 ‘정리수납 공동체 창업과정’을 계획, 수료 후 창업공동체 형성, 정리수납전문가를 워킹맘 가정에 파견해 창업공동체의 일자리 보장과 워킹맘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후관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호흡 맞춰 노래로

제5회

전라북도 아리울 어버이 합창제

2021년 12월 4일(토) 오후 3시~6시

전주 바울교회 2층 그레이스홀

주최: 전주매일신문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